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19. 지위 없는 참사람(無位真人)

흙 뿌리고 먼지 날려도 숨길 데 없네
 播土揚塵沒處藏
 먼진 출입이 너무 요란하군
 面門出入太郎當
 똥 누고 오줌 싸는 것도 부질없는 일
 撒屎撒尿渾閑事
 넓고 넓어 누가 악취와 향기를 분별하라
 浩浩誰分臭與香
 - 보령용(《선문염송》617칙 '무위')

다"라고 했다. 그대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주인공이 되면 그 서 있는 곳은 모두 진실하여 어떠한 경계에 부딪혀도 이끌리지 않는다.
 (서용연의 <임제록> 임제선원간. 1974.)

“주인공이 되면 선 곳마다 모두 참이다” 임제록 법문 ‘무위진인’ 구체적 형상화

위의 <임제록> 법문은 분명 임제 스스로 참지 못하고 무위진인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말씀이다.

스스로 ‘어느 곳에서나 주인공이 되면 선 곳마다 모두 참이다(隨處作主 立處皆眞).’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을 넘은 말이다. 이 말씀은 ‘무위진인’의 구체적인 형상화다.

앞 계승 1행에서 보령용은 “흙 뿌리고

먼지 날려도 숨길 데 없네(播土揚塵沒處藏/면진 출입이 너무 요란하군(面門出入太郎當))으로 표현되어진다.

요란하고 요란하여 늘 발가숭이가 맨 발로 실 사이 없이 드나드니, 4행에서 ‘넓고 넓어서 하늘과 땅이 뒤섞여 있고, 맑고 투명한 공기와 오줌 똥 냄새가 뒤섞여 마치 평지와 다름이 없이 아무렇지 않게 뒤섞여 있으니, 무엇을 시(屎)라 하고 무엇을 비(非)라 하리오. 진실로 3행에서 읊듯이 “똥 누고 오줌 싸는 것도 부질없는 일(撒屎撒尿渾閑事)”임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 <염송> 617칙을 읽어보자.

그 중이 망설이거늘 선사가 풀어놓으면서 말했다.

“지위 없는 참사람이 무엇이나? 마른 똥 막대기다(無位真人 是什麼乾屎橛).”
 청동각은 뒷날 이 이야기를 듣고 아래 의 시로 노래했다.

미혹과 깨침이 서로 반대되어
 迷悟相返
 묘하게 전하되 간략하다 妙傳而簡
 봄이 백 가지 꽃을 터뜨리니 한바탕 봄고
 春拆百花分一吹
 힘이 아홉 해를 돌릴 수 있으니 한 번 끈다
 力回九年今一挽
 진흙과 모래더미를 無奈泥沙
 헤쳐도 열리지 않아서 撥不開
 분명히 감천의 구멍을 막고 있다가
 分明塞斷甘泉眼
 홀연히 풀리니 사방으로 넘쳐흐른다 擘!
 忽然突出肆橫流 險

-청동각

*설봉의 착어: “임제는 흙사날도적과 같다(休際大似白拈賊).”

*월초의 착어: “자기가바로 무위진인이 다지기야 딱 꼬개어지는 것

위의 계승 어느 행에서나 없는 그것을 노래한다. 그게 그것이어서 위 계승에서 청동은 입을 모아 한 말로 표현한다. 무위진인은 이렇게 간단명료할 뿐이다.

임제가 시중했다.
 “하나의 지위 없는 참사람(無爲眞人)이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의 얼굴의 문인 입으로 드나든다. 증거를 잡지 못한 이는 살피보라.”
 이에 어떤 중이 나서서 물었다.
 “어떤 것이 ‘지위 없는 참사람’입니까?”
 임제가 선상에서 내려와 그의 목살을 쥐고 말했다.
 “말하라. 말하라.”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선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호박순찌개

우리나라 말 가운데 호박에 대해 좋지 않게 표현해 놓은 말들이 많습니다. ‘뒤틀구멍으로 호박씨 깬다’거나 ‘호박꽃도 꽃이나’ ‘호박같이 못생긴 얼굴’ 등이 그 예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호박머리(pumpkin head)’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호박은 비타민 A등 각종 영양소 풍부 다이어트·부기 제거·당뇨병에도 효과

(호박등)로 씁니다. 이것은 호박의 속을 깨끗이 비우고 눈 코 입을 만든 다음 그 속에 등을 넣어 빛이 새어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매년 10월 31일의 할로윈데이(Halloween Day) 때면 아이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이 호박등을 들고 집집마다 과자를 얻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늙은 호박으로 만든 호박죽, 호박 밥떡 등이 아납니다. ‘호박이 넘칠재 굴러 들려왔다’는 말에서는 ‘복’을 호박에 비유하고 있으니까요.

호박은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비타민 A를 비롯한 비타민의 공급원으로서도 중요한 채소입니다. 호박은 유럽에서는 주로 채소로 쓰이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호박 파이를 만들어 디저트로 먹기도 합니다. 호박은 푸딩과 수프를 만드는 데도 쓰이며, 스퀘시와 번갈아서 씁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호박을 ‘모든 성인의 축일’ 전야를 장식하는 도깨비불



호박순찌개

재료: 어린호박순, 어린호박, 감자, 풋고추, 쌀뜨물, 된장

- ① 어린호박순은 껍질을 까고 소쿠리에 담아 손으로 으깨면서 부드럽게 하여 푸른 물도 조금 뺀다.
- ② 어린호박은 빗방이로 깨뜨려 놓는다. ③ 감자는 굵은 깍둑썰기로 썰어놓는다.
- ④ 쌀뜨물에 감자를 넣고 끓인다.
- ⑤ 감자가 푹 무르게 삶아지면 어린호박과 호박순을 넣고 한소끔 끓인 다음 된장으로 간을 맞추어서 한소끔 더 끓인 후 낸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착하게 낚는 것의 영혼 정일근시학, 2006 | 값 8000원



자연에서 배우는 아름다운 자비

정일근의 아홉 번째 시집 <착하게 낚는 것의 영혼>에 게재된 시편에는 많은 불교 제재와 어휘들이 등장한다. 시집의 첫 시 ‘늑비’는 자연영이 농경의 필요에 의해 갈아엎어져야 하는 자연영의 운명을 자비 행위로 형상화하고 있다.

논에서 자라는 자연영은 한창 꽃이 필 때쯤 갈아엎어 거름을 만드는 두해살이 풀이다.

자연영은 꽃이 만발했을 때 갈아엎는다 붉은 꽃이며 푸른 잎 씩씩이하여 땅에 묻는다

저길 어쩌나 저길 어쩌나, 당신은 탄식하여도 그건 농부의 아만이 아니라 꽃의 자비다 꽃 피워 꿀벌에게 모두 공양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자연영은 땅에 묻혀 땅의 향기롭고 부드러운 연인이 된다 자연영을 늑비라고 부른다는 것 나는 은현리 농부에게서 배웠다, 늑비 나는 아름다운 말 하나를 꽃에게서 배웠다 꽃을 묻는 그 땅 위에 지금 푸른 버가 자라고 있다

- ‘늑비’ 전문

자연영을 갈아엎는 것은 농부가 되겠지만, “그건 농부의 아만이 아니라 꽃의 자비”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영을 ‘늑비’라고 부르는 데 화자는 이러한 것을 “은현리 농부”에게,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말 하나를 꽃에게서 배웠다”는 것이다. 시 ‘보일러 만트라’에서는 화자가 나무 보일러에 불을 넣었을 때 물이 끓으면서 내는

소리를 듣고 창작동기를 얻은 것이다.

화자는 나무보일러가 전생이 티베트 라마승 같다고 하고, 나무불을 넣으면 보일러는 열부터 먼저 한다고 한다. 보일러가 울마니반메움을 중얼거리고, 히말라야 만트라를 노래하고, 긴 열불 뒤에 한숨을 쉰다고 비유한다.

제목이 긴 시 ‘도다리 한 마리 놀지 못하는 바다를 가지고’에서는 통도사 스님과 설날 아침에 나누었던 대화를 가지고 열심히 시 쓰기를 하지 못했음을 과거의 울산 작전정 골짜기에서 글씨를 쓰고 살았던 인물을 통해 인유한다.

시인은 ‘밥 보리살타’에서 화자의 어머니가 행하는 지극한 보살행을 ‘고양이 밥 주기’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다리 하나를 잃은 도둑고양이
 식구처럼 돌보시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안 보살님
 절에 잘려가시면서
 밥상 차려 놓았으니 너는 밥먹고
 고양이는 밥 차려드려라
 꼭 데워서 따뜻한 밥 드려라
 추운 날 찬밥 주는 일
 그것은 죄가 된다
 내게 몇 번이나 당부하시는 어머니
 끼니끼니 찾아오는 도둑고양이에게
 끼니끼니 더운밥 차려 주시며
 다음 세상에서 만나면 갚아라
 쌀가마메고와서 꼭 갚아라
 다리 잃은 도둑고양이에게 당부하시는
 어머니의 밥 보리살타

- ‘밥 보리살타’ 전문

현대불교신문 새로운 감각달력

불기 2552년(2008) 무자년 NEW CALENDAR

현대불교신문사에서 독자적으로 불기 2552년(2008) 무자년 달력을 제작하였습니다. 가장 불교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 제작한 달력으로 한층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희상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하나로 돌아가기

작품: 희상 스님 크기: 30.5 × 30.5

절의 미학

사진: 박재원 기자 크기: 26.5 × 26.5

불국정토 남산

사진: 고영배 기자 크기: 26.5 × 26.5